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저작에 관한 '권리' 의식 급선무

### 불법 전송방지,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보호 등이 쟁점

출판사들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디지털 출판 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되지 않았고 온라인상의 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베스트셀러 위주로 e-Book이 판매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본문 검색 서비스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판매업체나 포털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사 내에서 실무자들이 디지털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베스트셀러 위주인 e-Book 시장

민음사의 경우 현재 북토피아에 위탁해서 이문열의 《삼국지》를 e-Book으로 판매하고 있고 도서본문검색 서비스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편집부의 이소연 씨는 “디지털 출판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편집부내에서 해당 도서를 담당하는 편집자가 저작권까지 담당하는데, 현재로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련 업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즈덤하우스는 북토피아를 통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e-Book으로 팔고 있다. 이 책의 경우 백만 부 돌파 이벤트로 특별 프로모션 차원에서 디지털 시화집 형태의 e-Book으로 제작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외의 다른 책들

은 특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체 260종의 책 중에 80종을 e-Book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즈덤하우스 인터넷사업팀의 정은선 팀장은 “지금의 e-Book 서비스는 앞으로의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자사 책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e-Book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 밖에 김훈의 《칼의 노래》(생각의나무),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문학과지성사) 등이 소설 분야의 e-Book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 외서, 저작권 계약상의 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

현재 e-Book으로 서비스되는 것은 거의 국내 도서다. 정 팀장은 “외서는 저자와 직접 별도의 2차 전송 계약을 맺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e-Book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도서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2차 전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있지만, 2차 전송을 원하지 않는 작가들의 경우 저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2차 전송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판인들 중에는 e-Book의 판매가 종이책 판매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 팀장은 “비주열한 것과 모바일을 선호하는 요즘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원하는 방식으로 출판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발상을 전환하면, 종이책과 모바일 책이 서



e-Book 판매 및 본문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북토피아(www.booktopia.com)

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종이책과 모바일 책을 서로 연계시켜 집 안에서 책을 읽다가 나가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앞서 읽던 부분을 이어서 읽는 독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정 팀장이 기대하는 미래의 풍경이다.

### 불법 전송 방지 · 디지털 저작권 이해 선행돼야

디지털 출판 환경이 발달할수록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전송이다. 요즘 P2P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e-Book(텍스트 파일 포함)의 수가 대략 2만여 건 정도로 파악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P2P상의 불법 다운로드 같은 복제 행위에 대해 그런 행위들을 하나 하나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출판사의 개별적인 단속보다는 저작권 공공단체에 위탁해서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작권보호센터의 2004년 온라인 저작권 관련 상담건수는 2004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저작권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는 “최근 디지털 저작권 관련 상담건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무자들과 경영자들이 저작권법상 ‘출판권’과 ‘전송권’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저작권자 고유의 권리와 출판계약에 따라 생기는 출판권자로서의 권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보호 쟁점 예상

최근 디지털 저작권 관련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종이책 제작·배포와 전자책 제작·배포에 미치는 권리에 대한 질문이고, e-Book까지 포괄하는 출판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나 계약서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사전에 저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

사 임의로 e-Book 회사에 편집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 저자의 별도 허락 없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본문 요약이나 본문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임의로 제 3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사용 허락을 하는 경우 등이 앞으로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Book 매출의 60~70퍼센트 정도가 도서관 납품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도서관 쪽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전송, 열람이 가능한 e-Book의 특성을 이용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열람하는 행위가 있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매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e-Book을 종이책처럼 취급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취재 김지희 기자

### 출판인들이 알아 두어야 할 디지털 저작권 계약 사항

- △ 종이책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출판계약서 작성이 유효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제작(e-Book 등)에선 별도의 전송권 이용 허락이 필요.
- △ e-Book 등 디지털 미디어의 제작까지 염두에 두고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송권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 종이책 출판에 대해서 출판권설정계약이 가능하지만(설정 등록을 하게 되면 배타권이 생김), 전송권에 대해서는 설정계약이 되지 않으므로 독점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

자세한 내용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www.kpa21.or.kr) 참조